

외국인 유학생의 이문화에 대한 태도와 개인적 특성이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

Effects Attitude of Cross-Culture and Personal Traits on Acculturation for Foreigner Students living in Korea

이상미

세명대학교 외식경영학과

Sang-Mi Lee(lee644@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서울에서 대학재학 및 어학연수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이문화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으며, 문화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이들이 대학생활과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고, 향후 기업의 인적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한다.

실증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첫째, 이문화 태도의 '문화적 거리감'은 '사회관습문화'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문화적 유연성'과 '이문화 인식'은 인간관계요인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문화 태도에서 '문화적 유연성'과 '이문화 인식'이 한국생활 만족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체류기간이 3-4년 정도인 유학생은 '사회관습'요인, 2-3년은 '전통문화'요인을 가장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외향적인 성향과 여성이 '인간관계'요인, 동양인이 '생활문화'요인을 더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심어 : | 이문화 태도 | 개인적 특성 | 문화적응 | 외국인 유학생 |

Abstract

This paper is 1) to analysis how attitude of cross-cultural and personal traits affects on acculturation for foreigner students living in seoul, and 2) to suggest some guideline that can be helpful to fast adaption in college life and Korea living and also to utilize personal resource in organization.

The findings are showed up as followed: The first, 'cultural distance' factor had high significant on 'social custom' in acculturation and also, two factors which are 'flexible culture' and 'recognition of cross-culture' affect on 'human relations' in acculturation. The second, 'flexible culture' factor and 'recognition of cross-culture' factor had influence on 'living satisfaction' in Korea. The third, foreign students who have length of stay less than 4 years had high recognized on 'social custom' and people who have length of stay 3 years come under 'traditional culture' factor. The fourth, an extrovert and female students had high recognized on 'human relationship' factor, and an oriental had high recognized on 'living culture' factor.

■ keyword : | Attitude for cross-culture | Personal Traits | Acculturation | Foreigner Students |

* 이 논문은 2013년도 세명대학교 교내 학술연구 지원비에 의해 수행된 논문임

접수일자 : 2014년 01월 23일

심사완료일 : 2014년 03월 07일

수정일자 : 2014년 03월 04일

교신저자 : 이상미, e-mail : lee644@hanmail.net

I. 서론

지구촌과 세계화의 흐름속에서 국가간의 인적·물적 교류 확대가 끊임없이 증가되는 추세이다. 특히,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문화적 다양성과 타문화에 대한 수용과 인식에 대해 올바른 자세가 필요하다. 이로써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문화를 접하게 되는 문화집변현상이 보편화되고, 사람들이 타문화에 대해 느끼는 감정과 인지도가 달라지게 된다.

행정안전부의 '201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에서 외국인 주민 수(장기체류 외국인, 귀화자, 외국인주민자녀 등)는 140만9577명으로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5073만4284명)의 2.8%에 해당된다. 지난해와 비교하여 14만4571명(11.4%) 증가하였고, 국적별로는 중국인 78만1616명(55.4%/ 조선족 40.4%), 베트남 16만2254명(11.5%), 미국 6만8648명(4.9%), 남부아시아 6만2862명(4.5%), 필리핀 5만9735명(4.2%) 순이다. 이미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외국인 주민 3명 중 1명(64.2%)은 기업체와 대학이 많은 수도권에 집중 거주하고 있다. 한국국적 미취득자 중 외국인 근로자는 58만8944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41.8%이며, 유학생은 8만7221명(6.2%)이다.

외국인 유학생이 우리사회에 많이 유입되면서 경제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국내대학생들은 외국 유학생을 통하여 그 나라의 언어,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등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세계시민으로서의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며, 외국인 유학생들도 한국의 경제, 경제, 사회, 문화에 걸쳐 깊이 이해하게 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국에 대한 지지력을 확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1].

세계적 기업들간의 경쟁심화 현상은 경영자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에게 국제적인 사업경험, 이문화 적응 경험을 하게 되며, 이를 통해 얻어진 글로벌 마인드, 세계적인 직관, 비결은 경제우위를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2]. 이문화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관계를 통한 행동이 긍정적일 때 동일한 문화에 있는 사람보다 조직에 대해 높은 몰입수준을 보이고 있고, 조직목적 달성, 비·재무적 성과도 긍정적이 된다고 하였다[3].

문화간의 갈등과 충돌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발생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문화간의 갈등 지점을 분석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경쟁력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인적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다문화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한국이 세계적인 시각을 통해 외국문화를 이해하고 포용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이문화 태도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또한 문화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이로써 유학생들이 대학생활과 한국문화에 익숙해지고 향후 조직의 구성원이 될 경우 기업문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이문화에 대한 태도

'이문화'라는 용어는 다른 문화를 수용하고 인식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문화적으로 민감하다는 것은 자신의 문화와 다른 나라의 문화가 다르며, 즉 문화의 차이가 의사소통방법과 관계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4][5].

Wang(1999)에 의하면 이문화 인식은 다른 나라의 문화와 자신의 문화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문화에 대한 관심은 타문화에 적응하려는 과정이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려는 호기심이라 하였다[6]. 이문화 인식이 높을수록 관광활동을 통해 객체적이고 실존적인 진정성을 더 깊게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7]. 또한, 관광활동을 통해 느끼는 이문화 인식에 대한 평가는 이문화 체험의도와 재방문의도와 추천의도를 나타내는 충성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8][9]. 다시 말하면, 관광객들의 문화와 전혀 다른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것 자체를 만족하게 되는 것이다.

이문화에 대한 태도는 자신과 다른 문화 및 구성원에 대해 중·부적인 인식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이해 수준을 결정하는데 중

요한 영향을 미친다[10].

이문화에 대한 태도는 인지적 요소, 정의적 요소, 행태적 요소로 나누어 이문화 태도의 구성요소를 설명하고 있다[10-12]. 첫째, 인지적 측면에서 이문화 태도는 이문화권의 사람들에 대해 갖게 되는 관심과 관련 있다. 이러한 이문화에 대한 관심은 외국, 외국인, 외국문화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둘째, 정의적 요소는 이문화권의 사람들에 대한 개인의 정서적 반응과 관련이 있다. 이문화에 대한 정서적 요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자국문화중심적인 태도이다. 이러한 태도는 모든 경험의 중심에 자국문화가 있으며, 이문화를 접하게 될 때 자국문화를 방어하려는 강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타문화권 사람들과의 접촉을 거부하게 되고, 갈등을 초래한다[13]. 셋째, 행태적 요소는 이질적인 문화권의 사람들과 교류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개인적 태도와 관련이 있다. 즉, 이질적 문화권의 사람들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거리감을 얼마만큼 느끼고 있는가에 따라 행태적 측면에서 이문화 태도를 파악하게 된다. 즉, 사회적 거리감(social distance)이 커질수록 이문화간에 오해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사회적 거리감이 줄어들수록 상호이해가 증진된다고 하였다. 사회적 거리감은 미국과 같은 다인종사회에 적합한 용어이다.

최근에는 이문화간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정서적 발전단계를 포함한 Hammer, Bennett, & Wiseman(2003)의 '문화간 발전 척도(IDI: Intercultural Development Inventory)'가 여러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11][12][14][15]. 문화간의 민감성을 측정하는 척도로 이문화에 대한 개인의 정서적 반응을 '타문화에 대한 거부단계', '자국문화 방어단계', '문화적 차이 최소화단계', '타문화 수용과 적응단계', '통합단계'의 5단계로 세분화하여 이문화의 정서적 반응을 측정하고 있다.

외국어는 의사소통의 수단이외에 외국에 대한 관심과 이해증진을 통해 외국문화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함양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16]. 외국인의 대화습관을 이해하고,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함께 외국문화에 대한 지식, 가치체계에 대한 이해, 그들의 관점에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에도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Berry(1997)는 자문화를 가진 개인과 집단이 타문화에 편입되어 지속적인 접촉을 통하여 새로운 주류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을 문화접변이라 하였다. 문화접변(acculturation)은 자문화를 고수하지 않으면서 일상생활에서 타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동화단계(assimilation)', 자문화에 집착하며 타문화와의 교류를 회피하는 '분리단계(separation)', 자문화를 유지하면서 타문화와 활발하게 교류하는 '통합단계(integration)', 자문화고수와 타문화수용 모두에 소극적인 '주변화단계(marginalisation)'로 분류된다[17].

민창기(2008)는 이문화 태도를 '외국문화에 대한 관심', '이문화 수용성', '인종적 거리감', '세계의식'의 4개 요인으로 구분하였고, 이문화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이문화 수용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이문화에 대한 관심만큼 이문화 수용태도가 개발되지 못한 것이라 하였다[18].

Lawson, Merrett & Williams(1996)은 현지주민이 관광객에 대한 관용과 수용이 성공적인 관광지가 되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 하였다. 외국 관광객을 수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관광객의 국적과 문화에 대한 현지주민의 태도라고 하였다[19]. Pizam, Uriely, & Reichel(2000)은 현지주민과 관광객의 사회적인 관계가 밀접할수록 관광객은 현지주민에 대해 더욱더 호감을 갖게 되고, 관광지에 대한 태도 역시 긍정적으로 변할 것이라 하였다[20].

고민정·강재정·서용건(2013)의 연구에서 외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이문화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고, 이문화 인지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외래 관광객에 대한 사회적 기여도, 적극성, 호의성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의 이문화의 인지도에 따라 외래 관광객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고 하였다[21]. Fontain(1993)은 이문화 인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관광활동을 통해 객체적이고 실질적인 진정성을 더 깊게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7].

변찬복·조선배(2010)의 배낭여행객의 이문화 인식, 진정성 및 충성도의 구조적 관계에서 다양한 관광동기가 충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달리 이문화

인식이라는 개인적 특성이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2].

2. 문화적응

Herskovites(1936)는 서로 다른 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만났을 때 발생하는 현상을 문화적응(acculturation)이라 하였고, ‘문화적 근원이 다른 사람들간의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접촉의 결과로 일어나는 변화’라고 정의하였다. 문화적응(acculturation)과정 중의 변화는 접촉하는 두 집단에게 나타날 수 있으며,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더 많은 문화적 영향을 받게 된다[23].

Berry & Kim(1988)은 외국인의 이문화 적응과정에서 1단계는 이문화 도입 준비단계, 2단계는 접촉기(새로운 문화와의 접촉으로 인한 문화와 행동의 변화), 3단계는 갈등기(이문화적 압박과 정신적 충격), 4단계는 위기기(갈등기 적응실패로 인한 정신적 문제 유발), 5단계는 적응기(이문화에 대한 적응)으로 구분하였다. 특히, 3단계는 이문화의 압력에 대한 갈등단계로 인식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러한 행동과 태도를 ‘이문화 적응’과 ‘이문화 수용’으로 정의하였다[24].

서신자·금명자(2012)는 일본 유학생을 대상으로 성별, 체류기간과 목적이 문화적응유형과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남학생은 주변화 유형으로 나타난 반면에 여학생은 통합유형으로 사회적응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어학연수 목적인 유학생은 통합유형, 대학교육이 목적인 유학생은 주변화 유형으로 나타났다. 체류기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25].

김영경(2009)의 연구에서 한국학생들은 중국 유학생보다 일본 유학생에게 덜 배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26]. Teseng(2002)은 미국에 유학중인 학생들의 적응문제를 크게 4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첫째, 생활문제(음식, 생활환경, 교통, 기후, 경제와 보건문제)이며, 둘째는 학업문제로 영어실력, 미국의 교육체제에 대한 무지, 효율적인 학습방법이며, 셋째는 사회·문화적인 문제로 문화충격, 문화적 피로, 차별, 규칙과 규율이고, 넷째는 심리적 적응문제로 향수병, 외로움, 우울, 고립, 좌절,

정체성 상실과 같은 것들이다[27].

외국인 유학생들의 어려움으로는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정신적, 육체적인 스트레스 외에도 언어문제, 사회적응과 경제문제, 고국에 대한 향수, 개인으로서의 역할갈등, 일상생활 수행[28], 강의내용의 이해부족, 연구수행과 발표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학업성취도 저하[29], 심리적 부적응[30]으로 나타났다. Zheng, Sang & Wang(2003)은 호주에 거주하는 중국인 학생들의 문화적응과 주관적 행복과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자국문화유지와 타국문화 수용이 모든 높은 ‘통합유형’의 사람이 다른 세유형의 사람들보다 주관적 행복감이 높게 나타났다[31].

송원·영리난(2008)은 1개월 미만의 중국인 학생의 경우 ‘동화유형’이 외로움과 불안이 낮게 나타났고, 행복감이 높아서 적응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2].

Lysgaard(1995)는 문화적응과정에서 체류기간에 따라 적응의 양상이 U자형을 보인다고 하였다. 노르웨이인을 대상으로 심리적 적응과정을 분석한 결과 체류 6개월까지는 적응상태가 좋지만, 그 이후 적응상태가 약화되고, 18개월을 지나면서 다시 양호한 적응상태가 되는 U자형 곡선을 나타낸다고 하였다[33]. Atkinson, Morton & Sue(1998)는 소수집단의 정체감 발달 모델(MID: Minority Identity Development)을 통하여 적응 초기는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높은 호감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반작용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다가 점진적으로 합리적인 평가와 선택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34]. 즉,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문화적응과정에서 변화가 있는 것이다. 또한, 이질문화에 접촉하게 된 이유나 목적에 따라서도 적응수준과 속도도 달라진다고 하였다[35].

김하림(2010)은 광주거주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는 것은 집단적 노력보다는 개개인의 노력과 이해정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이라 하였다. 친구의 개념이 한국은 동년배의 개념인 반면에 중국에서는 연령이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이는 수직적 구조가 강한 한국의 사회문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과 중국은

외면적으로 유사성이 많아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차이성이 크게 존재한다고 하였다[36].

이홍직(2011)은 만남의 빈도, 교수의 지지, 동료 중국 친구의 지지, 가족의 지지, 경제 및 도구적 지지, 정서 및 평가적 지지 등이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났고, 한국어 능력에 따른 스트레스는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37]. 이채식(2012)은 중국인 유학생의 안정적인 대학생활 적응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적응, 대인관계 및 언어능력의 영역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38].

유정원(2013)은 중국 유학생의 심리적인 장벽과 거리가 한국인과의 관계형성에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개인적으로 한국인과 접촉할 기회가 많거나 자주 어울릴수록 한국인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사회적 지지를 얻게 되고 한국생활적응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외국인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활발할수록 한국생활적응이 원활하다[39].

외국인 유학생들은 자신의 조국을 떠나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므로 모든 것이 낯설고 적응대상이며, 개인적, 사회적, 환경적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40].

III. 조사설계

1. 연구설계 및 연구가설 설정

본 연구는 서울에 체류하면서 대학 및 대학원 재학중이거나 어학연수중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이문화에 대한 태도가 문화적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설정을 하였다.

가설 1: 외국인 유학생의 이문화 태도는 문화적응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외국인 유학생의 이문화 태도는 한국생활만

족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외국인 유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라 문화적응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설문지 구성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모여 있는 Y대학, KH대학, S대학을 선정하였다.

가장 많은 유학생 비율을 갖고 있는 중국, 아시아권에서 선진국이면서 다문화 사회를 대변하고 있는 일본, 그 외의 국가는 영어의 설문지를 선정하였고, 응답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어로 부가적인 설명을 첨부하였다. 2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중국은 30부, 일본은 30부, 기타 40개 국가에서 140부를 회수하여 실증분석에 활용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첫째, 이문화(異文化)에 대한 태도는 민창기(2008), Hammer, Bennett, & Wiseman(2003), 윤종철(2007), Sampson & Smith(1957), Bogardus(1967), Kolar & Zabkar(2010), Wang(1999), 변찬복·조선배(2010)의 연구에서 14개의 변수를 도출하였다 [6][8][14][18][22][41-43]. 각 설문항목은 리커트 5점 척도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로 하였다.

둘째, 문화적응에 관한 변수는 Dodd(2007), 안혜영(2011), 한경숙(2011)의 연구에서 14개의 변수를 도출하였다 [5][44][45]. 셋째, 개인적인 특성으로 체류기간, 출신국가, 성격, 한국어 수준, 한국생활에 대한 만족도로 구성하였다. 넷째, 인구통계적인 사항으로 성별, 연령, 결혼여부, 방문목적으로 구성하였다.

IV. 실증분석

인구통계적인 사항은 [표 1]과 같이 나타났다.

[표 2]의 이문화의 태도를 요인분석한 결과 KMO값 .763이고, 바렛트 구형검정성 595.694로 나타났다. 요인 1은 '문화적 유연성', 요인 2는 '문화적 거리감', 요인 3은 '이문화 인식'으로 명명하였다.

표 1. 응답자의 인구통계적인 특징

| 변수 | 구분 | 빈도 | 비율 | 변수 | 구분 | 빈도 | 비율 | |
|-----|---------|-----|--------|-------|--------|------|------|-----|
| 성별 | 남성 | 81 | 40.5 | 연령 | 20대 | 166 | 83 | |
| | 여성 | 119 | 59.5 | | 30대 | 31 | 15.5 | |
| | 학력 | 미혼 | 170 | | 85 | 40대 | 3 | 1.5 |
| | | 가혼 | 25 | | 12.5 | 방문목적 | 공부 | 155 |
| 기타 | | 5 | 2.5 | 일하기위해 | 17 | | 8.5 | |
| 국적 | 중국 | 30 | 15.0 | 친척방문 | 10 | | 5.0 | |
| | 일본 | 30 | 15.0 | 여행 | 6 | | 3.0 | |
| | 인도네시아 | 6 | 3.0 | 어학연수 | 8 | 4.0 | | |
| | 르완다 | 2 | 1.0 | 기타 | 4 | 2.0 | | |
| | 사우디아라비아 | 3 | 1.5 | 국적 | 우즈베키스탄 | 4 | 2.0 | |
| | 방글라데시 | 6 | 3.0 | | 폴란드 | 2 | 1.0 | |
| 스웨덴 | 3 | 1.5 | 독일 | | 3 | 1.5 | | |
| 미국 | 10 | 5.0 | 아프가니스탄 | | 2 | 1.0 | | |
| 가나 | 1 | 0.5 | 이태리 | | 6 | 3.0 | | |
| 영국 | 6 | 3.0 | 태국 | | 7 | 3.5 | | |
| 국적 | 스리랑카 | 1 | 0.5 | | 루마니아 | 1 | 0.5 | |
| | 헝가리 | 3 | 1.5 | | 러시아 | 1 | 0.5 | |
| | 브라질 | 8 | 4.0 | | 캐나다 | 7 | 3.5 | |
| | 인도 | 6 | 3.0 | | 불가리아 | 3 | 1.5 | |
| | 온두라스 | 2 | 1.0 | | 네팔 | 3 | 1.5 | |
| | 체코 | 2 | 1.0 | | 포르투갈 | 2 | 1.0 | |
| | 멕시코 | 4 | 2.0 | | 터키 | 2 | 1.0 | |
| | 말레이시아 | 16 | 8.0 | | 에살바도르 | 2 | 1.0 | |
| | 스웨덴 | 2 | 1.0 | | 미얀마 | 2 | 1.0 | |
| | 몽골 | 1 | 0.5 | | 아제르바이잔 | 1 | 0.5 | |
| | 우크라이나 | 1 | 0.5 | | 필리핀 | 3 | 1.5 | |
| | | | | | 코스타리카 | 2 | 1.0 | |
| | | | 싱가폴 | 2 | 1.0 | | | |
| | | | 레바논 | 1 | 0.5 | | | |
| | | | 네덜란드 | 1 | 0.5 | | | |

표 2. 이문화 태도에 대한 요인분석

| 요인명 | 변수 | 요인 적재량 |
|--|--------------------------------|--------|
| 문화적 유연성 ($\alpha = 0.76 / 21.70\%$) | -한국인을 가족일원으로 받아들이 | .795 |
| | -한국인을 절친한 친구로 받아들이 | .702 |
| | -한국인을 동등하게 대우할 수 있음 | .699 |
| | -한국인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갖는 편 | .646 |
| |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을 사귀는 편 | .538 |
| | -한국문화에 동화되어 잘 적응하고 있음 | .531 |
| 문화적 거리감 ($\alpha = 0.64 / 14.07\%$) | -한국인은 우리나라의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편 | .718 |
| | -한국인은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 편견이 있음 | .697 |
| | -한국인은 우리나라의 생활관습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편 | .677 |
| | -한국인으로부터 인종차별을 느낀 적이 있음 | .668 |
| 이문화 인식 ($\alpha = 0.60 / 13.27\%$) | -한국인들의 행동에 맞추려고 함 | .686 |
| |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많은 관심 | .612 |
| |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편 | .596 |
| | -한국 문화유산에 대한 지식 습득을 좋아하는 편 | .541 |

*: Varimax 회전 후, 아이겐 값이 1을 넘는 요인을 추출함. 총설명력 값은 49.04%

** : 요인적재량이 0.5이상인 값을 나타냄.

표 3. 문화적응에 대한 요인분석

| 요인명 | 변수 | 요인 적재량 |
|--|-----------------------------|--------|
| 사회관습 문화 ($\alpha = 0.74 / 16.92\%$) | -한국인의 권위적인 태도로 힘든 편 | .800 |
| | -한국인의 외국인에 대한 편견으로 힘든 편 | .787 |
| | -나의 외모(신체, 복장)로 다르게 취급 | .656 |
| 인간관계 ($\alpha = 0.68 / 15.66\%$) | -한국문화 적응을 위해 많은 한국인 친구 사귀 | .817 |
| | -문제발생시 한국인 친구에게 도움요청 | .685 |
| | -모국인외에도 한국인과 잘 어울리는 편 | .652 |
| 생활문화 ($\alpha = 0.60 / 14.27\%$) | -한국의 TV, 라디오, 영화를 즐겨 시청하는 편 | .630 |
| | -한국의 음식문화 적응에 어려움을 느낌 | .763 |
| 전통문화 ($\alpha = 0.64 / 12.82\%$) | -한국의 음식문화 적응에 어려움을 느낌 | .736 |
| | -한국의 좌식문화로 생활의 불편을 느끼는 편 | .775 |
| | -한국의 인사법(어른에 대한 예절) 어려움을 느낌 | .691 |
| |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문화를 알게 됨 | .504 |
| | -한국인의 선·후배문화로 힘든 적 있음 | .462 |

*: Varimax 회전 후, 아이겐 값이 1을 넘는 요인을 추출함. 총설명력 값은 59.68%

** : 요인적재량이 0.4 이상인 값을 나타냄.

[표 3]의 문화적응 요인분석 결과 4개의 요인으로 묶여졌다. KMO값 .785이고, 바렛트구형검정성 735.785로 나타났다. 요인 1은 '사회관습문화', 요인 2는 '인간관계', 요인 3은 '생활문화', 요인 4는 '전통문화'로 명명하였다.

표 4. 이문화태도와 사회관습문화의 회귀분석

| 변수 \ 회귀분석결과 | 표준회귀계수 (t 값) |
|-------------------------|--------------|
| 종속변수 사회관습문화 | |
| 독립변수 문화적 유연성 | .091(1.520) |
| 문화적 거리감 | .538(8.997)* |
| 이문화 인식 | -.030(-.502) |
| R ² | .299 |
| Adjusted R ² | .288 |
| F 값 | 27.837 |
| P 값 | .000 |

*p(0.001)

[표 4]의 이문화 태도에서 '문화적 거리감'요인이 문화적응의 '사회관습문화'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R²값은 29.9%로 나타났다.

[표 5]의 이문화 태도에서 '문화적 유연성'요인과 '이문화 인식'요인은 문화적응의 '인간관계적응'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R²값은 37.8%로 나타났다.

이상미(2005)의 연구결과에 나타나듯이 조직내에서 개개인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상호존중과 모

든 직원에게 가치와 소속감을 부여하여 함께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하였다[46]. 따라서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타문화에 대한 오해와 편견과 같은 부정적인 요소를 최소화하여 유연한 대인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표 5. 이문화 태도와 인간관계의 회귀분석

| 변수 \ 회귀분석결과 | 표준화회귀계수 (t 값) |
|-------------------------|---------------|
| 종속변수 인간관계 | |
| 독립변수 문화적 유연성 | .531(9.426)* |
| 문화적 거리감 | -.050(-.883) |
| 이문화 인식 | .306(5.430)* |
| R ² | .378 |
| Adjusted R ² | .368 |
| F 값 | 39.706 |
| P 값 | .000 |

*p<0.001

이외에도 이문화 태도와 문화적응의 '생활문화'요인과 '전통문화'요인을 회귀분석결과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8.6%, 4.4%로 너무 낮게 나타나서 크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4]와 [표 5]의 회귀분석결과에 나타났듯이 '외국인 유학생의 이문화 태도가 문화적응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1이 채택되었다.

표 6. 이문화 태도와 한국생활 만족도의 회귀분석

| 변수 \ 회귀분석결과 | 표준화회귀계수 (t 값) |
|-------------------------|---------------|
| 종속변수 한국생활만족도 | |
| 독립변수 문화적 유연성 | .475(7.856)* |
| 문화적 거리감 | -.047(-.774) |
| 이문화 인식 | .233(3.846)* |
| R ² | .282 |
| Adjusted R ² | .272 |
| F 값 | 25.702 |
| P 값 | .000 |

*p<0.01

[표 6]의 이문화 태도의 '문화적 유연성'과 '이문화 인식'요인이 한국생활 만족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R² 값은 28.2%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의 이문화 태도가 한국생활 만족

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2가 채택되었다.

표 7. 체류기간에 대한 문화적응의 차이분석

| 체류 요인명 | >1년 n=84 | 1-2년 n=55 | 2-3년 n=30 | 3-4년 n=18 | 4년< n=13 | F(P) |
|--------------------|-------------|--------------|--------------|--------------|-------------|----------|
| 사회관습 문화 MRT* | 2.73 L | 3.19 - | 3.23 - | 3.44 H | 3.29 - | 16.823** |
| 전통문화 MRT | 2.68 L | 3.30 - | 3.35 H | 3.21 - | 3.09 - | 13.480** |

*MRT(Duncan Multiple Range Test: p,0.005)에 근거하여 H)M)L로 구분
** p<0.001

[표 7]의 문화적응의 '사회관습문화'요인과 '전통문화'요인이 체류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3-4년 정도 체류한 유학생들은 '사회관습'요인을 높게 인지하였고, 2-3년 정도 체류한 유학생은 '전통문화'요인을 가장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미·정현영(2009)은 외국인이 5년 이상 한국에 살면서 한국어, 문화, 음식, 대인관계에 적응하게 되는 정주화(定住化) 단계에 들어간다고 하였고[47]. 이러한 연구결과에 나타났듯이 3년 정도 체류한 유학생들은 한국사회의 사회관습이나 전통문화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하며, 한국의 문화와 생활에 적응하고, 동화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표 8. 성격에 대한 문화적응의 차이분석

| 성격 요인명 | 매우 내성적 (n=10) | 조금 내성적 (n=22) | 보통 (n=82) | 조금 외향적 (n=59) | 매우 외향적 (n=27) | F(P) |
|--------------|---------------------|---------------------|--------------|---------------------|---------------------|----------|
| 인간관계 MRT* | 3.55 L | 3.40 L | 3.64 L | 3.98 H | 4.09 H | 25.900** |
| 생활문화 MRT | 3.60 H | 3.25 - | 2.85 - | 2.45 L | 2.53 L | 16.907** |
| 전통문화 MRT | 3.55 H | 3.42 - | 3.01 - | 2.93 L | 2.75 L | 13.623** |

*MRT(Duncan Multiple Range Test: p,0.005)에 근거하여 H)M)L로 구분
** p<0.001

[표 8]의 성격에 따른 문화적응의 차이분석에서 외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유학생들은 '인간관계'요인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내성적인 성향의 유학생들은 '생활문화'요인과 '전통문화'요인을 높게 인식하는 것

로 나타났다.

표 9. 동·서양인에 대한 문화적응의 차이분석

| 요인명 | 동양인(n=116) | 서양인(n=83) | T값/P값 |
|------|------------|-----------|--------|
| 생활문화 | 2.98 | 2.46 | 3.624* |

*p<0.001

[표 9]의 동·서양인에 따른 문화적응의 차이분석에서 동양인이 한국의 음식과 음주문화를 더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양인 유학생에 유교문화의 특성을 갖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많은 표본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더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자국의 음식문화와 비슷한 부분을 많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10. 성별에 대한 문화적응의 차이분석

| 요인명 | 남성 (n=81) | 여성 n=119) | T값/P값 |
|--------|-----------|-----------|---------|
| 인간관계적응 | 3.60 | 3.88 | -3.322* |

*p<0.001

[표 10]의 성별에 대한 문화적응 차이분석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 특유의 친화력이 한국인과의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의 촉매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7-표 10]의 분석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개인적인 특성과 인구통계적 특성이 문화적응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3이 채택되었다.

이홍직(2011)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한국어 수준에 따른 문화적응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미 한국사회가 외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글로벌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혼여부, 연령에 따른 분석결과 유의적인 차이는 있지만 표본수의 현저한 차이로 인하여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서울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

상으로 이문화태도가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국문화에 적응된 유학생들이 본국과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향후 한국기업에 채용될 경우 기업조직문화에 빨리 적응하게 되고 그에 따른 생산성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증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문화 태도의 요인분석에서 '문화적 유연성', '문화적 거리감', '이문화 인식'의 3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문화적응의 요인분석에서 '사회관습문화', '인간관계', '생활문화', '전통문화'의 4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둘째, 이문화 태도의 '문화적 거리감'요인은 문화적응의 '사회관습문화'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문화 태도의 '문화적 유연성'과 '이문화 인식'요인은 문화적응의 '인간관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외국인 유학생의 이문화 태도가 문화적응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1이 채택되었다.

셋째, 이문화 태도의 '문화적 유연성'과 '이문화 인식'요인은 한국생활 만족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의 이문화 태도가 한국생활만족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2가 채택되었다.

넷째, 체류기간과 문화적응의 차이분석에서 3-4년 정도 체류한 유학생들은 '사회관습'요인을 높게 인지하였고, 2-3년 정도 체류한 유학생은 '전통문화'요인을 가장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성격과 문화적응의 차이분석에서 외향적인 성향의 유학생들은 '인간관계'요인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내성적인 유학생들은 '생활문화'요인과 '전통문화'요인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서양인의 차이분석에서 동양인이 생활문화요인을 더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대한 차이분석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개인적인 특성과 인구 통계적 특성이 문화적응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3이 채택되었다.

실증분석을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유학생들과 한국인들이 서로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생활

관습이나 언어의 차이에 대해 자국 언어로 설명한 교육용 비디오 테이프나 교재개발을 통하여 'misfactor'요소들을 줄여야 할 것이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대학 생활문화에 부딪치게 되는 문화적 충격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둘째, 외국인 유학생들이 대학생활이나 한국문화 적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외국인 전용 커뮤니티 센터를 운영하거나 한국학생들이 외국문화를 거리감 없이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세계화시대의 에티켓, 세계문화의 이해와 같은 교과과정, 다양성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외국인 유학생의 자국문화와 타문화의 융·복합을 통하여 이질감을 완화시키고, 빠른 문화적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진정성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타문화를 거리감 없이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세계교양시민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된 설문지에 한국어의 부가적인 설명을 포함시켰지만 특히, 영어가 모국어인 유학생들이 영어 설문지 내용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모국어인 아니기 때문에 언어의 미묘한 차이를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현재 국내대학에서 가장 많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으로는 중국과 일본인이다. 이들 국가는 한국과의 어느 정도 유교문화를 갖고 있는 동질적인 요소도 있지만 이질적인 요소도 많이 갖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중국과 일본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문화 태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문화와의 거리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 문헌

- 적자원부연구논문, 2003.
- [2] N. J. Adler and S. Bartholomew, "Managing globally competent people," *Academy of Management Executive*, Vol.6, pp.52-65, 1982.
- [3] J. S. Black, H. B. Gregersen, and M. E. Mendenhall, *Global Assignments: successfully expatriating and repatriating international managers*, San Francisco, Jossey-Bass, 1999.
- [4] C. F. Dodd, *Dynamics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5th ed* New York: McGraw Hill, 1998.
- [5] C. F. Dodd, "Intercultural readiness assessment for pre-departure candidates," *Journal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studies*, Vol.16, No.2, pp.1-17, 2007.
- [6] N. Wang, "Rethinking authenticity on tourism experience,"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26, No.2, pp.349-370, 1999.
- [7] G. Fontain, "Motivational factors of international travelers," *Psychological Reports*, Vol.72, p.1106, 1993
- [8] T. Kola and V. Zabkar, "A consumer-based model of authenticity: An oxymoron or the foundation of cultural heritage marketing?," *Tourism Management*, Vol.31, pp.652-664, 2010.
- [9] Y. Yoon and M. Uysal, "An examination of the effects of motivation and satisfaction on destination loyalty: a structural model," *Tourism Management*, Vol.26, No.1, pp.45-56, 2005.
- [10] R. L. Wiseman, M. R. Hammer, and H. Nishida, "Predictors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competence," *Int'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Vol.13, No.3, pp.349-370, 1989.
- [11] T. Sakuragi, "The relationship between attitudes toward language study and cross-cultural attitudes," *Int'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Vol.30, pp.19-31, 2006.
- [12] T. Sakuragi, "Attitudes toward language study
- [1] 노종희, 이일용, 유길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를 위한 국가별, 지역별 대학마케팅 전략*, 교육인

- and cross-cultural attitudes in Japan," *Int'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Vol.32, pp.81-90, 2008.
- [13] J. M. Bennett, *Cultural Marginality: Identity issues in intercultural training*, In R.M. Paige(Ed), Education for the intercultural experience, Yarmouth, ME: Intercultural Press, 1993.
- [14] M. R. Hammer, M. J. Bennett, and R. Wiseman, "Measuring intercultural sensitivity: The intercultural development inventory," *Int'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Vol.27, pp.421-423, 2003.
- [15] J. Jackson, "Globalization internationalization, and short-term stays abroad," *Int'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Article in press, p.10, 2008.
- [16] D. H. Leslie, Russell, and P. Govan, "Foreign language skills and the needs of the UK tourism sector," *Journal of Industry and higher Education*, Vol.16, No.6, pp.255-267, 2004.
- [17] J. W. Berry,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Vol.46, No.1, pp.5-68, 1997.
- [18] 민창기, "외국어 능력과 이문화에 대한 태도의 상관관계: 관광전공 학부생을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제20권, 제4호, pp.159-177, 2008.
- [19] R. Lawson, T. Merrett, and J. Williams, "The social impacts of tourism-a review of the literature with special emphasis on New Zealand," *Tourism Management*, Vol.25, pp.1-15, 1996.
- [20] A. Pizam, N. Uriely, and A. Reichel, "The intensity of tourist-host social relationship and its effects on satisfaction and change of attitudes: The case of working tourists in Israel", *Tourism Management*, Vol.21, pp.395-406, 2000.
- [21] 고민정, 강재정, 서용건, "이문화 인지도에 따른 외래 관광객에 대한 태도연구: 서귀포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경영문화*, 제42호, pp.321-345, 2013.
- [22] 변찬복, 조선배, "배낭여행객의 이문화 인식, 진정성 및 충성도의 구조적 관계", *호텔경영학연구*, 제19권, 제4호, pp.261-273, 2010.
- [23] J. W. Berry, Acculturation as varieties of adaptation, In A. Padilla(Ed), *Acculturation, Theory, Models and Some New Findings*, Washington: AAAS, 1980.
- [24] J. W. Berry and U. Kim, Acculturation and Mental health in Dasen, P. J .W. Berry, and N. Sartorius(Eds). *Cross-cultural Psychology and Health: Towards applications*, London: Sage. 1988.
- [25] 서신자, 금명자, "제한 일본 유학생의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유형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인간이해*, 제33권, 제1호, pp.35-47, 2012.
- [26] 김영경, "중국과 일본 유학생의 한국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요구분석", *상담학연구*, 제10권, 2009.
- [27] W. Teseng, "International student's strategies for well-being," *College student Journal*, Vol.4, pp.591-597, 2002.
- [28] B. Mallinckrodt and F. T. L. Leong, "International Graduate student, stress and social support,"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Vol.33, pp.71-78, 1992.
- [29] 공영태, "이공계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과 일본의 예비교육에 관한 고찰", *일본학보*, 제62권, pp.267-282, 2005.
- [30] 임수진, 한규석, "중국유학생이 겪는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사회-심리적 요인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제6권, 제3호, pp.413-427, 2009.
- [31] X. D. Zheng, Sang, and L. Wang, "Accultura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of Chinese studies in Australia,"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Vol.5, No.1, pp.57-72, 2003.

[32] 송원영, 리난, “제한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유학초기 심리적 적응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제15권, 제2호, pp.159-173, 2008

[33] S. Lysgaard, "Adjustment in a Foreign society: Norwegia Fullbright Grantees Visiting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Bulletin, Vol.7, pp.45-51, 1995.

[34] D. R. Atkinson, G. Morton, and D. W. Sue, *Counseling American minorities San Francisco*, CA: McGraw-Hill, 1998

[35] 허준영, 김광일, 이장한, “중국유학생의 문화적응과 정신건강”, 정신건강연구, 제18권,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연구소, pp.107-123, 1999.

[36] 김하림, “다문화사회와 광주거주 중국인 유학생의 의식”, 국제문화연구, 제3-1집, pp.1-23, 2010.

[37] 이홍직, “제한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결정요인: 인구사회학적 특성, 한국어 능력, 사회적 지지요인을 중심으로”, 스트레스연구, 제19권, 제2호, pp.183-194, 2011.

[38] 이채식,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 결정요인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제9권, 제2호, pp.121-140, 2012.

[39] 유정원, “제한 중국 유학생의 한국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개인적·사회적 교류, 경계인식, 주관적 평가를 중심으로”, 동북아문화연구, 제24집, pp.245-260, 2013.

[40] 나임순,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생활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비영리연구, 제5권, 제2호, pp.159-197, 2006.

[41] 윤종철, “외국인 사무직 근로자들의 이문화수용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인사관리연구, 제31집, 제3권, 9월, pp.79-102, 2007.

[42] D. L. Sampson and H. P. Smith, "A scale to measure world-minded attitude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45, pp.99-106, 1957.

[43] E. S. Bogardus, *A Forty-year racial distance study*, Los Angeles: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Press, 1967.

[44] 안혜영, *문화적응, 사회적 지원, 자존감이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K항공사 외국인 객실승무원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45] 한경숙, *정부초청 외국인 대학원 장학생의 한국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46] 이상미, “현대산업의 다문화주의 교류에 따른 효율적인 경영전략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5권, 제3호, pp.151-157, 2005.

[47] 이상미·정현영, “국내거주 외국인의 한식레스토랑 선택과 만족도 및 재방문에 관한 연구”, 외식경영연구, 제12권, 제1호, pp.293-313, 2009.

저 자 소 개

이 상 미(Sang-Mi Lee)

정희원



- 1989년 : 명지대학교 어문학사
- 1993년 : 미. FIU 호텔외식경영학 석사
- 2001년 : 세종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 경영학박사
- 현재 : 세명대학교 외식경영학

과 부교수

<관심분야> : 브랜드, 마케팅, 외식경영